

수도권 인구 전체 50% 돌파 文정부서도 지방은 서럽다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건설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무현정부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7일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4만9861명이다. 이 가운데 50.002%인 2592만5799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주·전남 등 14개 시도 인구는 2592만4062명으로 집계됐다. 국토 전체 면적(9만9720km²)의 12%에 불과한 수도권(1만1745km²)에 사는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보다 1737명 많은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단 조치 없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최근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난 10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앞서는 상황은 매년 이어지며 오는 2047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6%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 48.4%보다 3.2% 포인트까지 많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오는 2047년 국내 전체 인구는 4891만 1000명, 수도권 인구는 2525만4000명, 비수도권 인구는 2365만6000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보다 160만명 많

지나해 12월 말 기준

전체 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 수도권 살아

수도권 공장 증설 막고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펼쳐야

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시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가 국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0년으로 봤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말 현실화됐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사건'이 벌어지자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것은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제외하더라도, 노무현정부 계승을 자임한 문재인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되레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팽배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좌절됐으나 '수

도 이전'이라는 역대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꿈꾸고, 혁신도시·세종시 건설을 밀어붙였던 노무현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되레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균형발전 카드로 거론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진척이 없고, 수도권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신도시만 조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지방은 안중에도 없느냐", "문재인 정권에 지방은 없다"는 날선 비판이 지역민,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를 가릴 것 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통령 신년사가 특히 주목됐지만 문 대통령은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생활SOC 투자도 역대 최대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한 문장짜리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수도권 신도시 조성,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고, 산하 기업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 500개를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며 "위험하게 들리겠지만 수도권 집중을 누르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서울의 이명난 대학 5-10개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과감한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양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개선 통해 북미관계 이끄나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제안
 개성공단 재개 등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북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쟁 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에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

력, 도교올림픽 단일팀 등의 스포츠 교류,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삶이 고르게 나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

성·청년·어르신인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거론하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외의 전장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공수처법 공포 의결 ... 7월 설치 가시화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러 오는 7월 공수처 설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의미도 갖는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중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처럼 바뀐 '게임의 룰'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적용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든 것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도올 김용옥 전남인재학당 가보니 ▶2면

천덕염의 건축인문기행 - 미안마 ▶18면

KIA, 안치홍 롯데 이적 후폭풍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MORE PACIFIC CORPORATION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

● 3만원 이상



프레시팜 베이직 선물세트
32,900원



러 뱀백&박하 에디션
34,900원



저자극 더마 헤어&바디세트
36,900원



러 자양요미 세트
39,900원



사랑행복두배 세트
49,900원



정성가득 세트
55,900원

● 3만원 이하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AP 아로마퍼퓸 세트
29,900원



AP 로즈에디션 세트
28,900원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